

## 11년 제자리...어등산관광단지 개발 '탄력'

민간사업자 투자비 반환 소송 조정 합의...최대 걸림돌 해소

9월 새 사업자 공모·연내 선정...“광주의 랜드마크 속도내야”

광주시의 해묵은 현안 중 하나였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계획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최대 걸림돌이었던 민간 사업자의 투자비 반환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3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전날 시와 원(原) 개발업체인 (주)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투자비 반환 소송과 관련해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투자비 지급 금액은 광주시가 229억원을, 어등산리조

트는 399억원을 주장해왔다.

어등산리조트 측은 애초 요구한 399억원에 비해 160억원이 적지만, 법원의 조정 사항을 수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도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유원지 개발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원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법원이 적절한 조정결정을 내놓은 만큼 양측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 추진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어등산 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경우 이미 투입된 땅값, 공사비 등 상당액을 새 공모 사업자가 부담하

### ■ 어등산 관광단지조성 사업 개요

위치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원
규모	273만6000㎡(82만7000평)
사업비	3400억원(민자)
기간	2005~2019년
사업내용	유원지(테마파크·숙박시설), 골프장, 녹지 등
시행자	광주시도시공사

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내렸다. 어등산리조트가 토지매입, 설계비, 공사비 등에 이미 투입한 비용을 주라는 의미다.

광주시가 2005년 사업 시작 당시 맺었던 협약에는 민간사업자와 협약 해지 시 보상수수료, 부대경비 등을 뺀 토지보상비를 돌려주게 돼 있다. 법원의 결정은 이 협약에 근거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전체 골프장 중 대중제 9홀의 운영 손수익을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계속 기부할 것과 체육시설(골프장) 부분 준공 검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도 이행하고 결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큰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오는 9월이면 유원지개발을 위한 새 사업자 공모 절차에 들어가 연말 안에 선정할 계획이다”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민자 34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27홀) 조성 이외에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소쇄원 낙서 이게 뭐니까 이름은 역사에 남기세요



3일 담양군 남면 소쇄원을 찾은 담양군청 관계자가 낙서로 가득한 제월당 벽면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해마다 3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소쇄원은 낙서 등으로 인한 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제월당 벽면·기둥 곳곳 훼손

### 대나무도 ‘○○○○’ 수난

조선 중기 만들어진 한국 최고의 민간정원으로 한해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소쇄원(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40호)이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쇄원을 이루는 건물 중 하나인 제월당은 한쪽 벽면 전체가 낙서로 얼룩지다시피 했지만 관리주체인 담양군은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쇄원이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소개된 뒤로 방문객 급증과 함께 낙서로 인한 훼손은 몇 년에 한 번꼴로 반복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소쇄원을 소유하고 있는 문종과 협의를 끝내면 곧장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 소쇄원을 다녀간 방문객은 30만3800여 명으로, 담양군은 1인당 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수난도 마찬가지였다. 마디 곳곳에 ‘○○○○○○’라는 낙서가 새겨져 있었다.

소쇄원 낙서는 몇 달째 방치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주체인 담양군은 정작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소쇄원이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소개된 뒤로 방문객 급증과 함께 낙서로 인한 훼손은 몇 년에 한 번꼴로 반복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소쇄원을 소유하고 있는 문종과 협의를 끝내면 곧장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한해 소쇄원을 다녀간 방문객은 30만3800여 명으로, 담양군은 1인당 2000원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도로엔 ‘물벼락’ 광주·전남지역에 사흘간 최고 220mm 이상의 장맛비가 쏟아진 가운데 3일 광주 남구 대남로를 지나는 차량들이 미처 배수되지 못한 빗물을 튀기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220mm ‘물폭탄’...장맛비 6일까지 최고 80mm 더 온다

장마전선이 광주·전남지역에 사흘간 최고 220mm 이상의 물 폭탄을 쏟아부었다. 이번 장마전선은 오는 6일까지 사흘간 최고 80mm 이상의 비를 더 뿌린 뒤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3일간 내린 비의 누적 강수량은 구례 피아골 229mm를 최고로 광양 백운산 206mm, 영암 204mm, 담양 봉산면 199.5mm, 광주 182.4mm, 장성 159.5mm 등이다.

기상청은 “3일 하루에만 신안 거제도 112.5mm, 진도 97mm, 영암 92.5mm, 해남 82.4mm, 광주 65.7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비는 6일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4일에는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들고, 5일에는 흐리고 낮 동안 가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5일까지 30~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4일 오후부터 5일 사이 해안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 위기의 지역대학 <3>

교육부 공모사업에 목매는 대학 ▶6면

### 시대를 밝힌 노래 <4>

새야 새야 파랑새야와 동학혁명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정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240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